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8E	19E	18E	19E	18E	19E
현대중공업	8,714.8	18.7	126,000	-4.5	-3.8	22.8	31.3	87.8	42.1	0.6	0.6	0.7	1.4
현대로보티스	6,938.1	21.3	426,000	-2.4	0.0	28	11.8	5.7	4.8	0.8	0.7	14.1	14.7
현대일렉트릭	825.6	6.9	80,900	-1.9	-7.4	-30.0	-29.0	7.7	6.7	0.7	0.6	9.3	9.7
현대건설/기계	1,703.7	8.4	172,500	-2.8	3.3	-3.4	2.1	11.0	8.1	1.2	1.1	11.7	13.9
삼성중공업	3,400.2	15.6	7,580	-1.8	4.1	12.3	17.2	47.8	23.7	0.5	0.5	1.0	1.9
대우조선해양	2,851.7	3.9	26,600	-3.6	8.4	73.3	91.4	9.6	10.7	0.9	0.8	9.2	7.5
현대미포조선	1,908.0	12.3	95,400	-4.6	-10.4	10.9	21.2	20.6	14.9	0.7	0.7	3.6	4.8
한진중공업	328.2	6.7	3,095	-1.0	-5.9	-9.2	-6.5	62.3	15.5	0.4	0.4	0.7	2.8
현대엘리베이터	1,935.6	29.3	77,800	-2.4	35.5	40.2	43.0	13.7	13.4	1.9	1.7	14.6	13.3
두산밥캣	3,107.7	27.1	31,000	-1.3	-6.6	-14.1	-13.4	11.4	10.7	0.9	0.8	7.4	7.6
현대로템	1,343.0	25.4	15,800	0.0	23	-16.2	-15.7	20.4	13.9	0.9	0.9	4.5	6.3
하이록코리아	315.1	48.1	23,150	0.9	-3.1	29	29	10.5	9.6	0.9	0.8	8.8	9.0
성광밴드	313.2	16.8	10,950	-4.8	-8.0	7.9	9.7	968.0	393	0.7	0.7	0.1	1.8
태광	310.1	15.2	11,700	-6.8	-19.0	-4.9	-2.9	69.9	34.1	0.7	0.7	1.0	2.1
두산중공업	1,628.9	10.4	15,300	-3.8	4.4	-1.9	-0.3	12.6	9.4	0.5	0.5	4.3	5.3
두산인프라코어	1,765.1	12.8	8,480	-12.3	-6.7	-6.6	-2.4	7.6	6.8	0.9	0.8	12.0	12.4
두산엔진	389.2	3.3	5,600	-2.8	27.0	45.5	52.0	-183.8	56.5	0.7	0.7	-0.4	1.3
한국항공우주산업	4,786.0	17.3	49,100	-1.7	0.4	1.4	3.5	34.9	24.1	3.7	3.4	10.6	13.9
한화테크윈	1,507.0	12.9	28,650	-3.2	2.7	-21.5	-19.4	23.3	15.2	0.7	0.6	2.8	4.1
LIG넥스원	1,039.5	11.2	47,250	-1.9	0.0	-21.6	-21.0	18.5	13.3	1.6	1.5	8.9	11.5
태웅	373.1	3.7	18,650	-3.9	-9.2	-4.6	-3.6	N/A	N/A	N/A	N/A	N/A	N/A
동성화인텍	203.7	5.1	7,550	-6.6	-14.0	44.4	49.5	-314.6	44.7	22	22	-0.7	5.0
한국카본	263.3	15.6	5,990	-4.3	-5.8	9.9	11.8	49.7	26.8	0.8	0.8	1.7	3.1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대우조선, 초대형 원유운반선 3척 2.6억달러 수주

대우조선해양은 대한해운으로부터 30만DWT급 VLCC 2척을, 유럽지역 선주로부터 VLCC 1척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들 선박의 총 계약규모는 2억 6천만달러(약 2,750억원)으로 알려짐. 그 중 대한해운에서 수주한 선박 2척의 계약규모는 1억 7,680억달러(1,871억원) 수준이며, 내년 말까지 인도될 예정임. (조선비즈)

현대重그룹 1000억 규모 태양광 발전소 공사 수주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와 현대일렉트릭은 현대건설이 1,000억원에 발주한 6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설비와 130MWh급 ESS 공급 및 설치 프로젝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 발전소는 충남 서산 간척지에 건설되며, 완공되면 국내 육상용 태양광발전소 중 최대 규모가 될 예정임. (머니투데이)

115명 회사 그만뒀지만...STX조선 노사 구조조정 평행선

정부와 채권단이 요구한 구조조정 제출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STX 조선해양 노사는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으로 알려짐. STX조선 자구계획에는 생산직 인건비 75% 감축을 포함됐지만, 생산직 690여 명중 115명이 희망퇴직과 아웃소싱을 신청해 4월 9일까지 추가 인력감축이 필요한 상황임. (연합뉴스)

CSSC and CSIC in the dark on yard mega-merger

중국 CSSC와 CSIC는 거래소 공시를 통해, 정부에서 합병과 관련된 사항을 전달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힘. 그러나 CSSC가 중국 공산당 중앙회 관계자 Lan Fanpei를 신임 회장으로 선임한 부분이, CSSC와 CSIC의 합병을 위한 포석이라 시각도 있음. 또 중국 국영기업은 효율성을 위해 합병하는 추세임. (TradeWinds)

성동조선, 법정관리인 누가... "회생 전제돼야"

3일 창원지방법원은 성동조선 통영조선소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임. 현장검증 이후 회생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며, 빠르면 일주일에서 늦어도 한달 이내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될 전망임. 이후 회생이 결정되면 회생과정을 주도할 법정관리인을 선임할 계획으로 알려짐. (EBN)

Ultra vs Smaller

1.8만TEU 이상급의 울트라라지지 컨테이너선이 비용절감에는 좋으나, 1) 크기 때문에 아시아와 유럽 항만 막고는 기항할 곳이 없고, 2) 높은 터미널 기항 비용 등의 단점이 있다고 알려짐. 최근 CMA-CGM 같이, 1.4만TEU급 발주하려는 선사가 증가하는 이유도 선박의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됨. (선박뉴스)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시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8년 4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간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2018년 4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시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8년 4월 3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